코로나에도 은행 연체율 최저… 착시 vs 실질 건전성 개선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40%
연체채권 정리규모 전월보다 줄어
대기업 연체, 2012년 1월이후 최저
금융 리스크 확대 가능성 제한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전혀 악화되지 않는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며 지표가 왜곡됐다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간의 연체율 하락세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대기업 역시 연체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는 하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오히려 0.08%포인트 하락했다. 절대적인 수치로도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월 대비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도 연체가 늘어서가 아니다. 신규연체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전월과 같았지만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1조1000억원으로 전월 1조9000억원보다 줄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코로나 위기가 은행 연체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금융연구원은 올해 일반은행의 대손비용이 최대 1조5000억원 늘면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우려와 달리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 긴급자금 대출과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하면서 예상했던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5월 가계 및 기업 대출 순증 금액은 21조원으로 4월 33조원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올해 3분기까지 가계 및 기업의 연체, 부도 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며 "원리금 상환 유예보다는 대출 지원금액이 많다는 이유에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2021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제외해도 실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케이프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정부 지원대책에 따른 상환의무 유예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직전까지 은행 연체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원대상이 아닌 대기업 연체도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양호한 연체지표를 지원에 의한 지표의 왜곡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 2016, 2018년 발생한 일부 대기업 조선사의 연체를 제외할 경우 2013년부터 하락추세다. 기업의 4월 말 기준 연체잔액은 대출 증가에도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BNK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은 있지만 은행 고객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은행(왼쪽부터),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자에 농협컨소시엄

SNP랩, 농협 銀·생보·손보 등 참여
기업공유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금융서 유통까지… 신사업 모델 발굴

NH농협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 농협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개인)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농협 컨소시엄은 농협은행을 비롯해 NH디지털혁신캠퍼스 입주기업이자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인 SNP랩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등 전 금융영역이 참여했다. 개인의 금융 및 비(非)금융데이터를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저장소에서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0년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 농협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협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개인은 보상받고,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농협 상호금융 및 다양한 계열사들의 참여를 통해 금융에서 유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서 국민은행 윤준태 부장, 우리은행 박성봉 부장, 하나은행 이동현 부장, 기보 이재필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 국민·우리·하나銀과 비대면상품 활성화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손잡고 비대면 보증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이들 은행과 '비대면 활성화 및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기관 최초로 도입한 비대면 보증상품인 원클릭보증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 예정인 클린플러스보증을 적극 추진한다.

원클릭보증은 고객이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증신청부터 지원가능여부까지 알 수 있도록 개발된 독자적인 빅데이터 기반 보증상품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보증지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다 쉽고 빨리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클린플러스보증은 전용사업자 선정 후 은행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생명

한부모가정·복지관에 생필품

한화생명이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곳의 한부모가정과 복지관에 생필품을 기부하는 '맘스케어 마켓'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고객 중 FP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고객의 가게 300곳에서 각 100만원, 총 3억원의 물품을 구입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비용은 임직원 봉사기금인 '사랑모아기금'을 활용한다.

한화생명 FP들은 소상공인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행사 내용을 소개하고 사내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투명한 선정과정을 위해 내·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고객의 사연과 현재 매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품, 문구류, 도서, 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고객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금융체험교실이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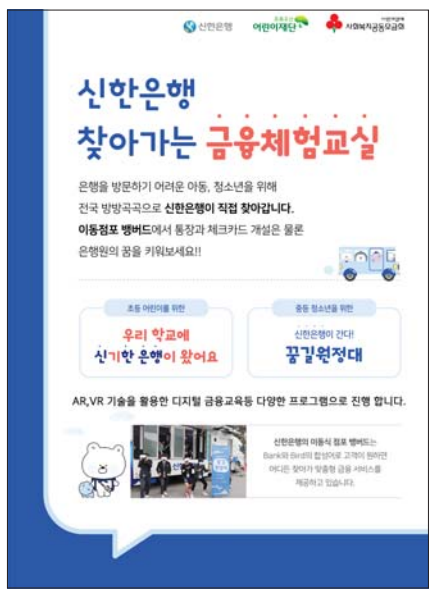
2015년부터 매년 진로체험 교육

신한은행은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신한은행이 간다! 꿈길원정대'와 '우리학교에 신기한 은행이 왔어요'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은 신한은행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이다. 주변에 은행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초·중학교를 방문해 은행원 직업체험교육 및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이 대상인 '우리학교에 신기한 은행이 왔어요'와 중학생이 대상인 '신한은행이 간다! 꿈길원정대' 2가지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금융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추천을 받은 아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을 실시한다. 강동꿈마을을 시작으로 아동보육시설 및 전국 농산어촌 학교를 찾아갈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의 이동점포(뱅버드)를 이용해 은행원 직업체험을 할 수 있으며, 금융 보드게임 외에도 AR,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은행영업점 방문, QR코드를 활용한 퍼즐게임 등을 통해 입체감 있는 디지털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우리銀, 정장 기부로 취준생 부담 던다

우리은행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주간 '우리의 청춘, WOORI를 입다' 정장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 임직원은 정장, 셔츠, 벨트, 넥타이 등의 의류를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열린옷장'에 기부하며, 열린옷장에서는 해당 의류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에게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사내 소통게시판 '우리들의 생각 나눔터'에 올라온 한 직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임직원 복장 자율화로 옷장 속 정장을 청년 구직자를 위해 기부하자는 의견이었고, 해당 글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직원의 공감을 얻었다.

권광석 은행장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의 간절함을 기억할 것이다"며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하는 우리은행 임직원의 따뜻한 응원이 전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